

'새미르통신' | '새미르'는 '용화회상'과 '미륵'을 뜻하는, 전법성지 '신용동'의 '신용(新龍)'에 대한 순우리말 표기이고, '통신(通信)'은 초기 교단의 소통을 담당했던 불법연구회 기관지 '월말통신'에서 모셔왔습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성은 진화의 조건 | 원불교정책연구소 환경분석과에서는 출가교역자의 사회흐름과 교단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새미르통신'을 발행합니다. 본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종법위의 시사적 주제들로 구성되며, 교회단보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배경 및 목적

정책연구소는 원기 95년과 96년 그리고 97년과 99년에 이어 "제5차 원불교 사회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의 원불교 위상에 대한 점검과 원불교 인식 및 호감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회정책수립의 방향 설정과 교육·교육·복지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매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원불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추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미르통신 29호 요약보고서

사회적 인식은 교세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이번 '5차 원불교 사회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교단 2세기를 맞아 교회대불공의 성업을 성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교화 정책과 다각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호감도, 접촉의향,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교구별 수치를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각 교구별 홍보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조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원불교인들이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항은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특히 2030 세대의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 종교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이웃종교 무시(25.0%), 성직자나 교인의 자질(23.2%),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22.0%) 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가 한국사회에서 가져야 할 사회활동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는 여전히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6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들이 정책입안자와 모든 원불교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실질적인 교단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새미르통신>29호는 요약보고서입니다. 보다 상세한 분석자료를 담은 정식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조사 개요

01. 조사명 | “원기 101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 인지도, 이미지, 호감도”

06. 조사 지역 | 전국: 7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02. 조사 주체 및 예산 지원 | 조사 주체 : 원불교정책연구소, 예산 지원 :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07.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전문업체 조사원 활용)

03. 실시 기관 | (주) 한국 리서치 전화조사팀

08.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후 무작위추출

04.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전화조사 방식의 한계로 청소년 조사는 유보)

09. 표본 수와 표본 오차 | 유효표본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05. 조사 기간

원기 101년 6월 2일 ~ 9일까지(8일간)

10. 조사 내용

① 한국사회의 선호 종교(+선호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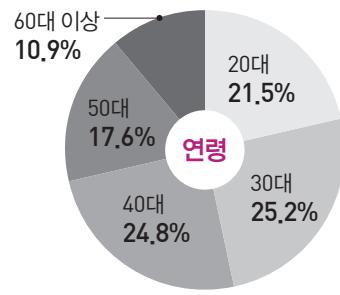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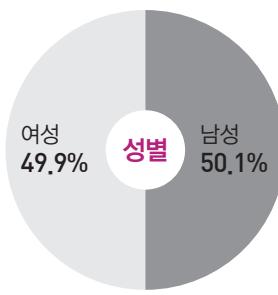
② 한국사회의 원불교 인지도 수준
(+인지경로)

③ 한국사회의 원불교 이미지 인식
(+느낌/대상)

④ 한국사회의 원불교 호감도 수준
(+접촉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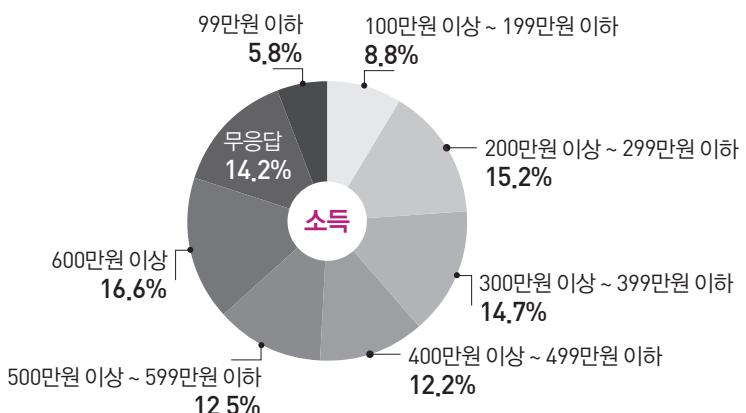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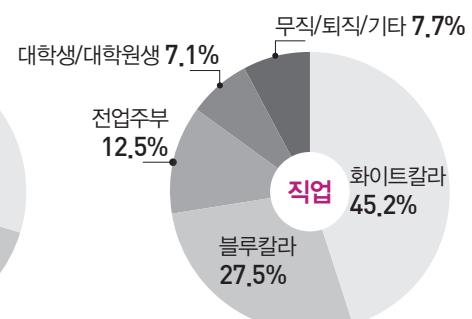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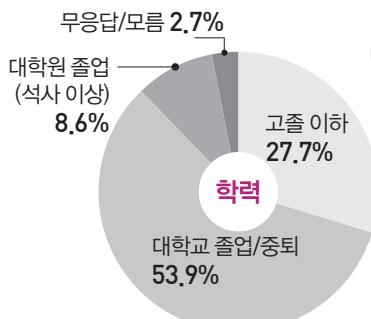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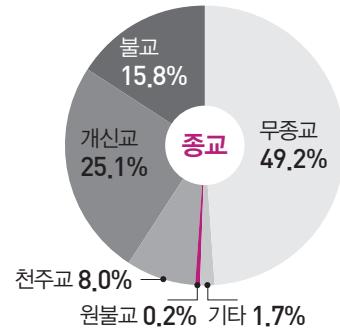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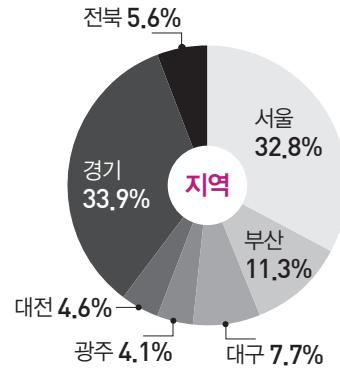
⑤ 한국사회 종교에 대한 요구(+사회활동)
* 각 항목은 인구속성(성별/연령/지역/학력/소득/직업/종교 등) 변수에 따라 분석됨.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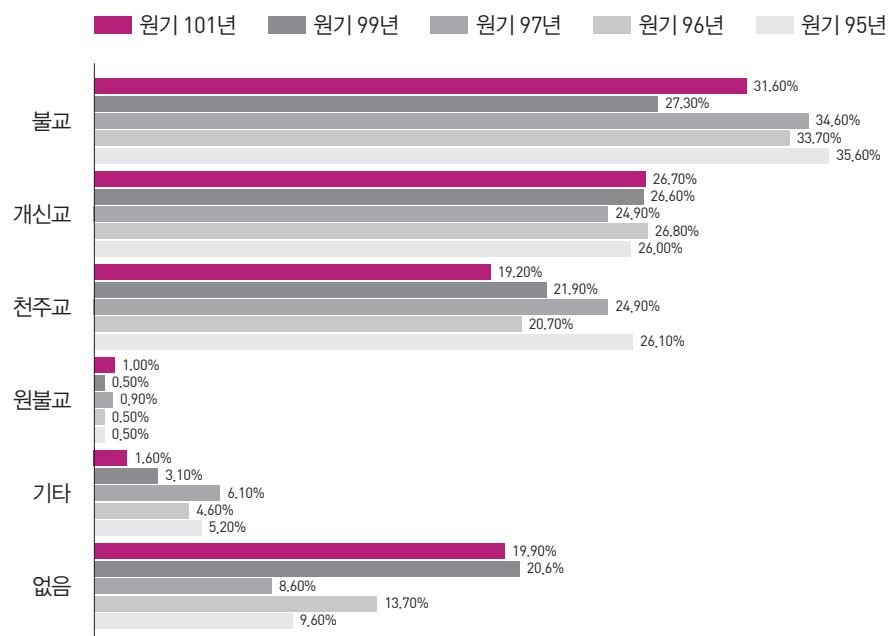


0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연령·지역별 응답자 수는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첫 조사와 동일하게 할당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종교 비율은 불교 신자가 13.9%에서 15.8%, 무종교가 45.7%에서 49.2%로 다소 늘었고, 천주교는 11.8%에서 8.0%로 다소 줄었으며, 그 외 개신교, 원불교 비슷하게 표집 되었다. 그밖에 직업과 학력은 지난번 조사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고 지난번 표집과 비슷하다. 소득 범주에서 99만원 이하가 3%에서 5.8%로, 600만원이상이 11.2%에서 16.6%로 약간 올랐으며, 300만원이상 ~ 399만원 이하가 18.3%에서 14.7%로 무응답이 18.1%에서 14.2%로 줄었으며, 그 외는 소폭 변동이 있었다.



02.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 전체적으로는 불교가 4.3% 증가하고 천주교가 2.7% 가량 감소했다. 그 외는 지난 번 조사와 거의 비슷하다. 원불교는 95년 96년 조사때 0.5%에서 97년에 0.9%로 조금 늘어나다 다시 0.5%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1.0%로 늘었다.

■ 자신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원불교(100%)>천주교(96.25%)>불교(93.04%)>개신교(89.64%) 순으로 원불교는 2명 모두 호감이 있다고 하여 100%이며, 2년전과 마찬가지로 개신교가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종교인은 불교(33.13%)>천주교(18.9%)>개신교(7.9%) 순의 호감도를 보여주어 2년전과 순위 변동은 없지만 불교의 호감도가 4.3% 정도 상승했고, 원불교도 0.72% 올랐다.

■ 연령대별로 호감도 순위를 보면

20대 : 개신교(28.8%) > 불교(24.2%) > 천주교(17.2%) > 원불교(0.5%)

30대 : 불교(28.2%) > 개신교(23.0%) > 천주교(22.2%) > 원불교(2.0%)

40대 : 불교(34.7%) > 개신교, 천주교(23.4%) > 원불교(0.8%)

50대 : 불교(36.9%) > 개신교(35.2%) > 천주교(13.6%) > 원불교(1.1%)

60대 : 불교(38.5%) > 개신교(24.8%) > 천주교(15.6%) > 원불교(0%)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불교가 1순위였고, 20대만 개신교 1순위였다. 원불교는 60대에서 호감도 0%이고, 그 외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지난 번 조사에서 30대와 40대의 호감도가 0%이었는데, 이번 조사는 60대가 0%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호감도** 1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 개신교(29.0%) > 불교(28.1%) > 천주교(23.5%) > 원불교(0.6%)

부산 : 불교(51.3%) > 개신교(17.7%) > 천주교(11.5%) > 원불교(0.9%)

대구 : 불교(44.2%) > 천주교(22.1%) > 개신교(10.4%) > 원불교(0%)

광주 : 불교(31.7%) > 천주교(19.5%) > 개신교(17.1%) > 원불교(4.9%)

경기 : 개신교(29.5%) > 불교(28.0%) > 천주교(17.4%) > 원불교(0.6%)

대전 : 개신교(32.6%) > 불교(23.9%) > 천주교(17.4%) > 원불교(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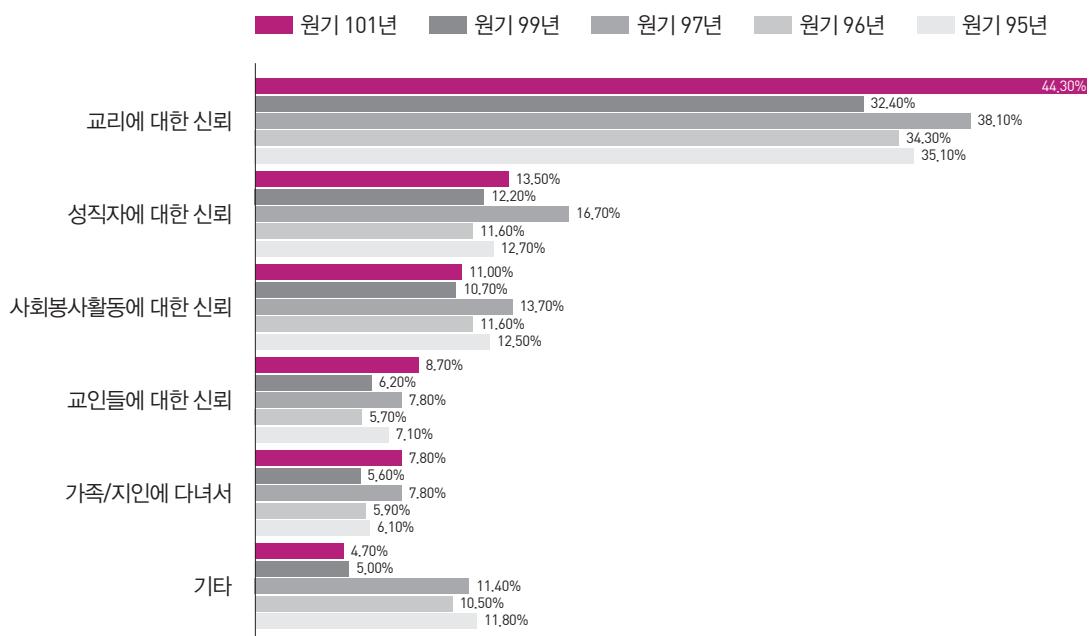
전북 : 개신교(39.3%) > 불교(23.2%) > 천주교(17.9%) > 원불교(5.4%)

지역별로 개신교의 1순위가 4곳(서울, 경기, 대전, 전북)이고, 불교의 1순위인 곳이 3곳(부산, 대구, 광주)이며 원불교는 전북이 5.4%로 가장 높고, 대전과 대구가 0%로 인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광주가 2년전 조사에서 0%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향상되었다. 지난 번 조사에서 0%인 지역이 부산, 대구, 광주, 경기 4곳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대구 한 곳으로 줄어들었다.

■ 종교인별로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총 10명이 호감 있는 종교로 선택하여 2년전 조사보다 많이 높아졌고, 원불교 2명은 모두 호감을 나타냈고, 개신교 1명, 무교 7명 호감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무종교에서는 2인에서 7인으로 3.5배가 늘어났다.



03. (2번 답변에 대해) 호감을 갖는 이유



■ 전체적인 추세는 지난 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교리에 대한 신뢰가 2년전 조사보다 11.9%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이를 종교별로 분석하면,

불교신자 : 교리(52.6%) > 가족/지인 (11.7%) > 성직자(7.8%) > 사회봉사(7.1%) > 교인(4.6%)

개신교신자 : 교리(61.4%) > 가족/지인 (11.0%) > 사회봉사(8.9%) > 교인(6.1%) > 성직자(5.7%)

천주교신자 : 성직자(35.4%) > 교리 (29.1%) > 사회봉사(12.7%) > 교인(11.4%) > 가족/지인 (3.8%)

원불교신자 : 교리(50.0%) = 성직자 (50.0%)

무종교인 : 교리(31.2%) > 성직자(16.4%) > 사회봉사(14.2%) > 교인(12.2%) > 가족/지인(4.8%)

지난 번 조사와 비교해 보면, **불교**는 지난 번 조사에서 성직자가 가장 낮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봉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교인은 9.4%에서 4.6%로 낮아졌다.

개신교는 교인이 2.9%에서 11%로 높았져서 가장 낮았으나 이번에는 2번째로 올라왔으며 반면 성직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천주교는 지난 번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불교는 지난 번 조사에서 교리로만 한정되었다가 이번에는 교리와 성직자가 각각 50%씩 차지하였다.

무종교도 지난 번 조사와 추세는 비슷한데 **무종교인은 여전히 교리와 성직자에 대한 호감을 주는 이유가 있다.**

전체적으로 교리에 대한 호감이 높고, 천주교만 성직자에 대한 호감이 높다. 다만, 불교와 개신교가 지난 조사와 불교는 성직자가 높아졌고, 개신교는 낮아졌음을 상기해 봐야 한다.

■ 이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20대 : 교리(36.5%) > 사회봉사(17.7%) > 성직자(14.7%) > 교인(12.2%) > 가족/지인(8.3%)

30대 : 교리(40.0%) > 성직자(14.4%) > 교인(10.8%) > 사회봉사(10.26%) > 가족/지인(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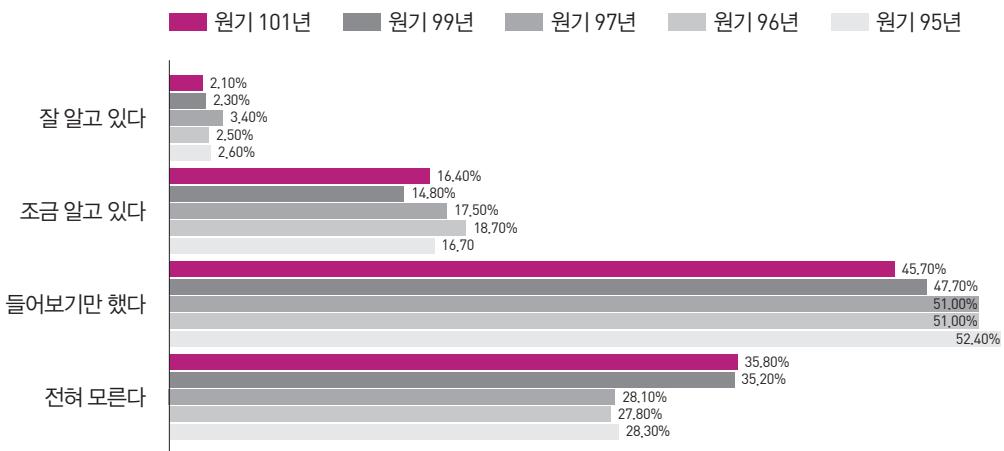
40대 : 교리(46.9%) > 성직자(14.5%) > 사회봉사(9.7%) > 교인(8.2%) > 가족/지인(4.8%)

50대 : 교리(54.2%) > 성직자(12.3%) > 가족/지인(7.1%) > 사회봉사(5.8%) > 교인(5.2%)

60대 : 교리(44.3%) > 사회봉사(14.8%) > 가족/지인(11.4%) > 성직자(9.9%) > 교인(5.7%)

연령별로 볼 때 20대와 60대는 교리와 사회봉사, 30대, 40대, 50대는 교리와 성직자가 호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4.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 2년전 조사에 비해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들어보기만 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64.0%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전혀 모른다도 0.6% 증가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번 들어보기만 했다가 47.7%였는데 이번에는 45.7%로 2%줄어든 만큼 조금알고 있다가 14.8%에서 16.4%로 조금 증가하였다. 지난 번 조사보다 조금 나이진 것으로 보여지나, **매년간 추이를 보면 전혀 모른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원불교에 대해 ‘들어보기만 했다’고 응답한 **45.7%**의 대중을 표적으로 한 적극적 교화활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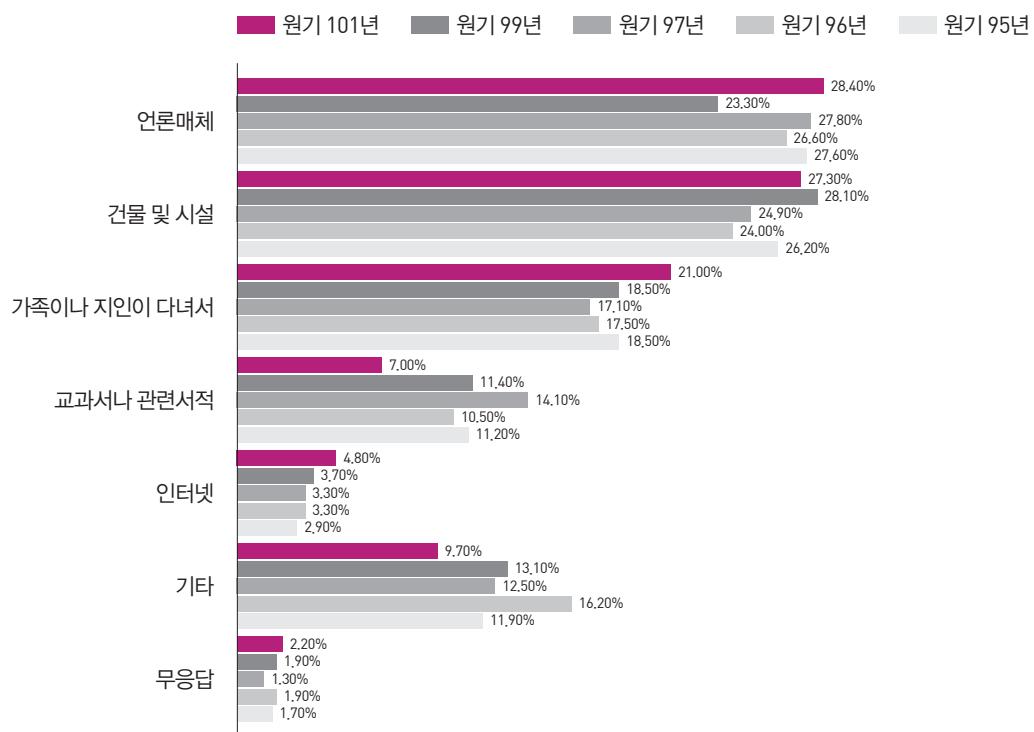
■ 원불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이 2년전과 비슷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40.7%)이 남성(30.9%)보다 원불교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반면에 원불교에 대해 “안다”(조금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는 남성(22.4%)이 여성(14.6%)에 비해 인지 정도가 높았음.

■ 원불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은 연령대별로 20대(48.8%) > 60대(40.4%) > 40대(34.7%) > 30대(29.0%) > 50대(28.4%)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원불교를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50대(4.6%), 60대(3.7%)로 조사되었음. 이는 2년전 조사에서 60대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20대가 잘 모르고 있음이 특징적임.

■ 원불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은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7.2%)>주부(36.8%)> 학생(36.6%)>블루칼라(34.9%)>무직·기타(28.6%) 순으로 조사되었음.

■ 원불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41.2%) > 대전(43.5%) > 경기(38.1%) > 부산(34.5%) > 광주(34.2%) > 서울(32.3%) > 전북(28.6%)로 나타났음. 전북지역에 기관이나 교당이 편중되어 있어 인지도가 그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보임.

05. ‘원불교’ 인지 경로



■ 원불교를 접하게 된 경로의 순위는

(29.6%) > 가족이나지인(18.5%)

언론매체(28.4%) > 건물 및 시설(27.3%)

50대 : 언론매체(31.8%)>건물 및 시설(25.4%)>가족이나지인(23.8%)

가족이나 지인이 다녀서(21.0%) > 교과서

60대 : 가족이나지인(35.4%)> 언론매체(29.2%)>건물 및 시설(15.4%)

나 관련서적(7.0%)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적으로 언론매체와 건물이나 시설이 이미지가
큼을 알 수 있음. 그간 추이를 보면 언론매체는 원기 95년부터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건물도 감소하였다가 원기 99년에 간간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고, 가족이나 지인은 감소하다가 원기 9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매체’와 ‘건물 및 시설’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건물 및 시설’이 높았으며, 40대와 50대는 ‘언론매체’, 60대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인지함을 알 수 있음. 연령대별 인지경로도 매 조사때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족, 건물, 인터넷, 언론, 교과서, 기타, 모름

서울 : 언론매체(30.6%) > 건물 및 시설(28.8%) > 가족이나지인(15.8%)

부산 : 건물 및 시설(31.1%) > 언론매체(23.0%) > 가족이나지인(24.3%)

대구 : 언론매체(30.2%) > 건물 및 시설(27.9%) > 가족이나지인(16.3%)

광주 : 가족이나지인(37.0%) > 건물 및 시설(22.2%) > 언론매체(14.8%)

대전 : 언론매체(46.2%) > 건물 및 시설(19.2%) > 가족이나지인(11.5%)

경기 : 언론매체(29.1%) > 건물 및 시설(25.1%) > 가족이나지인(21.4%)

전북 : 가족이나지인(42.5%) > 건물 및 시설(27.5%) > 언론매체(12.5%)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 건물 및 시설(28.2%)>언론매체

(21.8%) > 가족이나지인(13.6%)

30대 : 건물 및 시설(30.2%)>언론매체

(26.3%) > 가족이나지인(20.7%)

40대 : 언론매체(30.9%)>건물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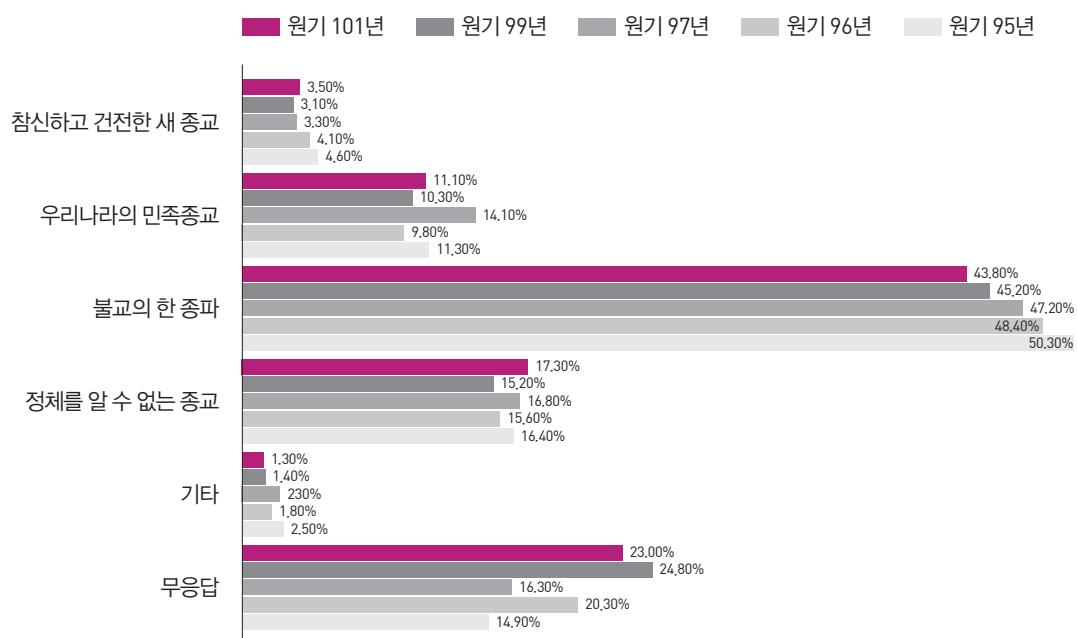
지역별로 분석시, 서울, 대구, 대전, 경기는 언론매체, 부산은 건물 및 시설, 광주와 전북은 가족이나 지인이 높았음.

■ **인터넷을 통한 홍보 전략**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을 통한 인지경로가 조금씩이나마 매 조사마다 올라가고 있으나, 20대 12.7%를 제외하고는 모두 5% 미만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SNS를 통한 원불교 홍보활동에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06. ‘원불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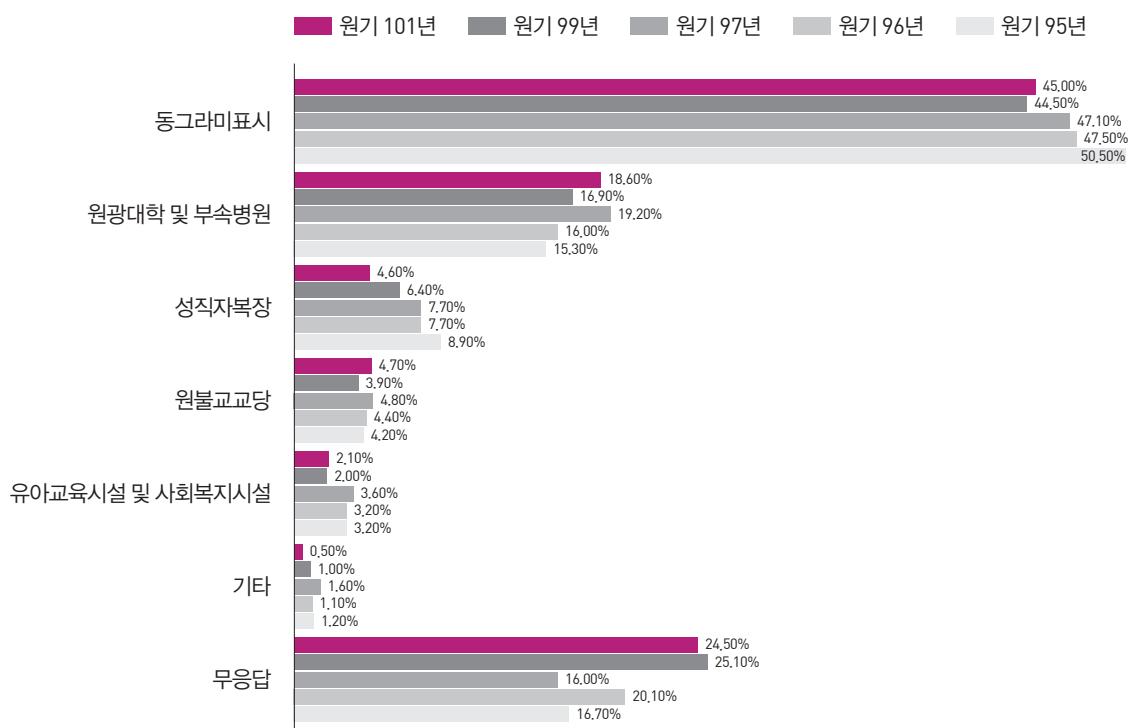


- 원불교를 여전히 ‘불교의 한 종파 (43.8%)’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 (17.3%)’로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아래 계속 바뀌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불교의 종파에 대한 대체 인식을 할 수 있는 대안과 원불교 교리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으면 함.**

- **종교별** 응답을 살펴보면,
 - 불교** : 불교종파(46.2%) > 정체불명(12.7%) > 민족종교(9.5%) > 새종교(3.6%)
 - 개신교** : 불교종파(44.6%) > 정체불명(21.5%) > 민족종교(10.0%) > 새종교(0.4%)
 - 천주교** : 불교종파(46.2%) > 민족종교(22.5%) > 정체불명(8.8%) > 새종교(6.3%)
 - 원불교** : 새종교(100%)
 - 무종교** : 불교종파(42.5%) > 정체불명(18.5%) > 민족종교(10.6%) > 새종교(3.1%)
- 종교별 인지도를 봐도 대부분 불교종파나 정체불명으로 알고 있어서,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아직 원불교의 정체성을 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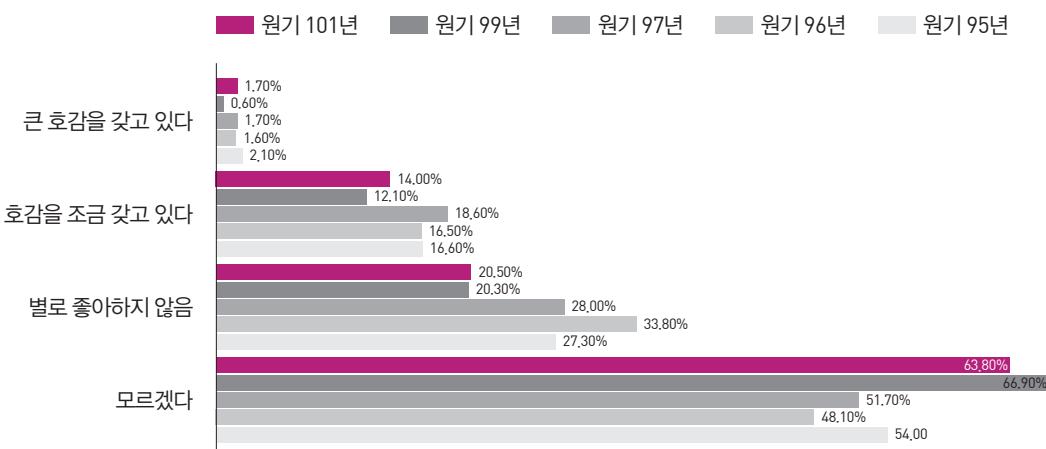
-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원불교 교세가 가장 강한 전북 지역에서 조차 ‘불교종파’(44.6%), ‘정체불명’(17.9%), ‘민족종교’(7.1%), ‘새종교’(7.1%)로 나타남. 전북 지역에 개신교인이 많아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전북에서부터 원불교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07. ‘원불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대상



- 매 조사 때와 비슷하게 ‘원불교하면 먼저 떠오른 대상’으로 예 대한 응답은 “동그라미”가 45%로 거의 절반이고, 그 다음으로 “원광대학교 및 부속병원”이 18.6%임. 하지만, 동그라미는 점점 줄어드는 추이이고, 원광대학교와 부속병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원불교 성직자 복장도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원기95년 8.9%에서 이번 조사에서 4.6%로 거의 반절이 줄었음. 복장에 대한 이미지 줄어들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원광대학교 및 부속 의료기관의 매회 조사 때마다 증가하고 있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대학과 병원으로 이미지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2.1%, 교당은 4.7%에 그치고 있음.
- 교당과 복지시설, 어린이집으로 원불교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과 부속병원을 잘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음.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원광대학교와 부속병원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교단은 함께 해 간으면 함.

08.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



긍정적 이유(총 157명)

특별한 이유 없음 35명, 가족/지인이 믿는 종교라 15명,
깨끗한 느낌/사회적 문제없어서 13명,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 13명,
나쁜 이미지가 없어서 11명,
좋은 일/사회활동을 많이해서 10명,
원불교 신자/교직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8명,
교리가 마음에 들어서 8명,
민족종교여서 7명,
원불교 소속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서 6명,
모든 종교를 존중해서 6명,
타종교인에 대한 인정/융화 4명,
타 종교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3명, 좋은 종교 같아서 3명
참신한 종교같아서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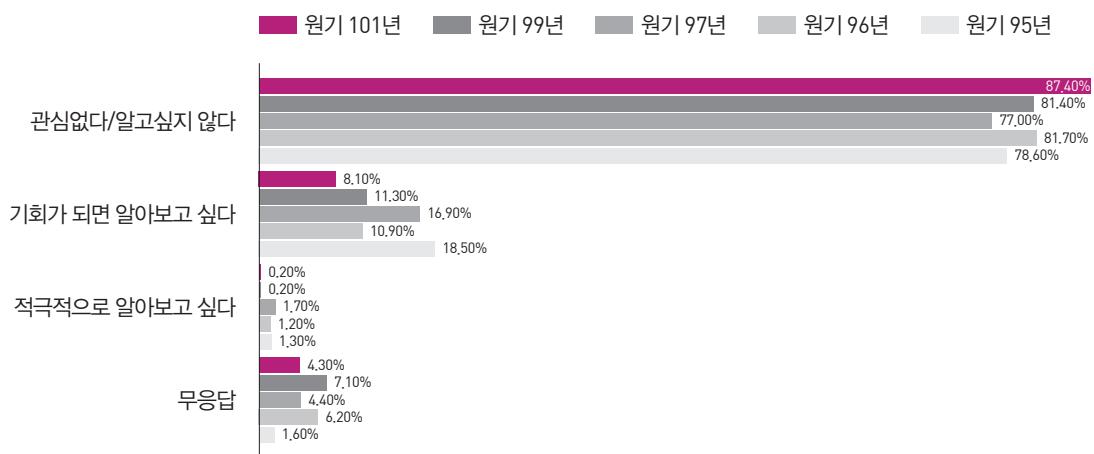
부정적 이유(총 205명)

특별히 관심 없음 52명,
원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34명,
관심이 없어서 33명,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서 24명,
이단 종교 같아서 15명, 사이비 종교 같아서 12명,
신도와 성직자에 대한 불신 12명, 느낌이 좋지 않아서 6명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6명,
TV/언론에서 부정적이어서 4명,
불교를 싫어해서 3명,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같아서 2명,
폐쇄적인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종교 같아서 2명

■ 지난 원기 99년 조사에 비해서는 큰호감과 조금호감이 12.7%에서 15.7%로 3%정도 증가했고, 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음은 20.3%에서 20.5%로 거의 비슷함. 모르겠다는 66.9%에서 63.8%로 3.1%감소했음. 즉, 지난 번 조사보다 미미하지만 조금 호감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지난 4번의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호감과 조금호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반면 모르겠다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임. 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음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서 긍정적임.

- **성별**로 보면 호감(조금호감, 큰호감)이 남성은 20.3%로 여성 11.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보면 호감(조금호감, 큰호감)이 60대(24.7%) > 50대(18.7%) > 40대(14.5%) > 20대(13.5%) > 30대(12.7%)로 50~60대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전북(26.8%) > 광주(17.1%) > 대구(16.9%) > 서울(16.5%) > 경기(14.7%) > 부산(12.4%) > 대전(8.7%) 순으로 호감도가 나타남. 특이한 것은 인지도에서 대구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호감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종교별**로 보면 원불교(100%) > 불교(31.6%) > 천주교(18.7%) > 기타(17.7%) > 무교(13.0%) > 개신교(9.2%) 순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17.0%) > 대학교(15.2%) > 대학원졸(14.0%) 순으로 조사됨.
- **수입별** 집단에서는 300만원대(20.4%) > 600만원이상(19.9%) > 400만원대(18.8%) > 200만원대(15.8%) > 100만원미만(13.8) > 500만원대(12.0%) > 100만원대(11.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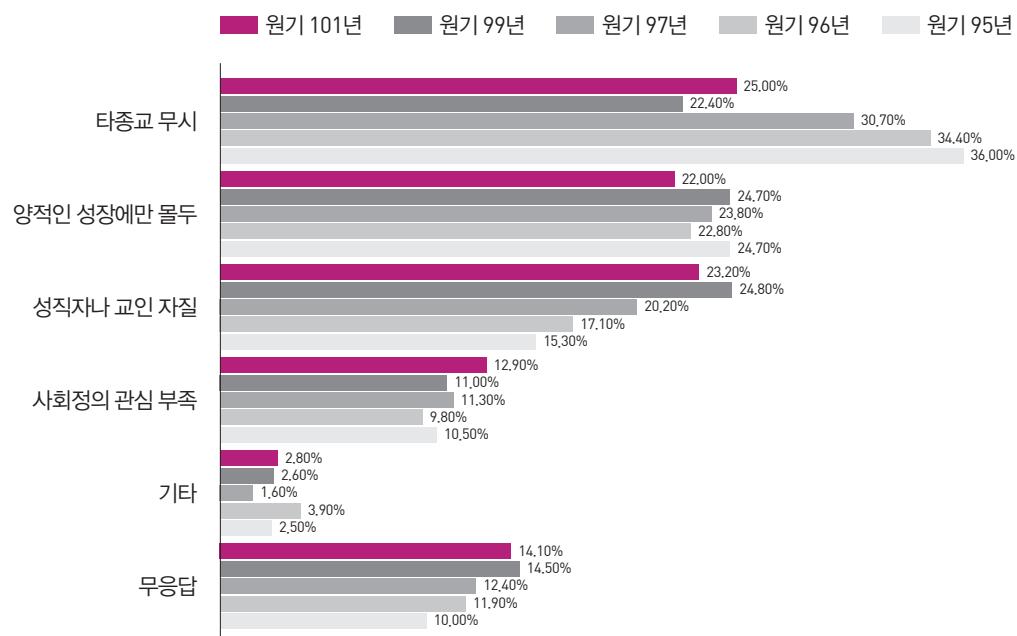
09. ‘원불교’에 대해 알아볼 의향



■ 대중들의 원불교에 대한 관심 수준을 알 수 있는 ‘접촉의향’이 8.3%로 나타난 지난 해 11.5%에서 감소했음.
이는 이번까지 5회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원불교에 대해 관심없다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0. 한국사회 종교의 가장 큰 문제점



■ ‘타종교 무시’ 25.0%, ‘성직자나 교인의 자질’ 23.2%,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 22.0%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99년 조사 때 ‘성직자나 교인의 자질’(24.8%),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24.7%), ‘타종교무시’(22.4%)순으로 나온 것에 비하여 다소 변화가 있음.

■ 종교별 응답을 살펴보면,

불교 : ‘타종교무시’(30.4%) > ‘양적성장’ (23.4%) > ‘성직자나 교인자질’(17.7%) > ‘사회정의 관심부족’(10.8%)

개신교 : ‘양적 성장’(30.3%) > ‘성직자나 교인자질’(24.7%) > ‘사회정의 관심부족’(17.1%) > ‘타종교 무시(16.3%)’

천주교 : ‘타종교무시’(27.5%) > ‘양적성장’(21.2%), ‘성직자나 교인자질’(21.2%)> ‘사회정의 관심부족’(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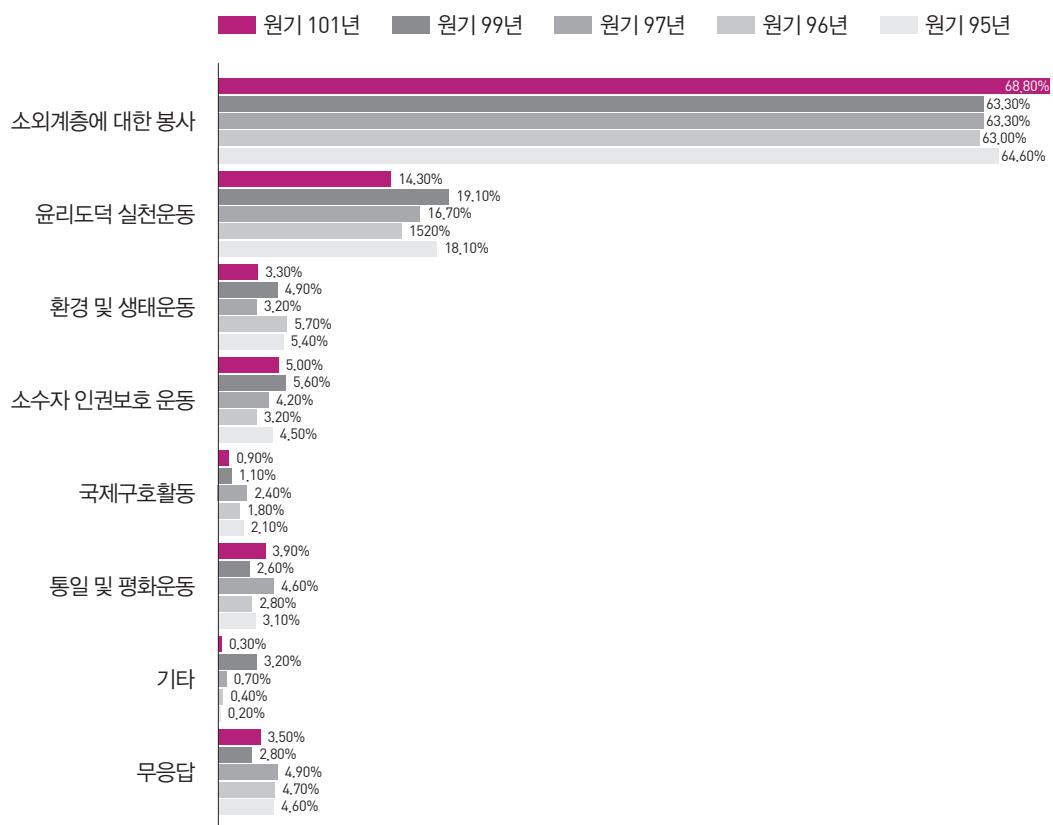
원불교 : ‘타종교무시’(100.0%)

무종교 : ‘타종교무시’(27.0%) > ‘성직자나 교인자질’(24.8%) > ‘양적성장’(18.1%) > ‘사회정의 관심부족’(10.8%)

■ 몇 년 간 추이를 보면, ‘양적성장몰두’와 ‘타종교 무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성직자나 교인 자질’은 늘어가는 추세이고, ‘사회정의관심부족’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교단의 방향도 양적성장과 타종교무시는 줄이고, 성직자나 교인의 자질과 사회정의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듯 함.

11. 한국사회 종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활동



■ 응답자들은 종교의 사회활동이 **순수한 자선**의 차원에서 혹은 **도덕적 계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음. 이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68.8%)’나 ‘윤리 도덕 실천 운동(14.3%)’ 항목에 대한 지지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매 조사마다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소수자 인권보호’는 높아지는 반면, ‘환경 및 생태운동’과 ‘윤리도덕 실천운동’, ‘국제구호활동’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교단 정책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방향을 고려하고, 반면 환경 및 생태운동, 윤리 도덕 실천운동, 국제구호활동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12. 조사의 함의

요약

- 지난 4번의 조사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분포로 조사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 가장 호감 있는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순이며, 지난 4번의 조사와 같이 원불교의 호감도(1%)는 비슷하였음.
- 호감이 가는 이유는 지난 4번의 조사와 같이 ‘교리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 조사에서 17.1%에서 18.5%로 1.4% 높아졌으며, 전혀 모른다는 35.8%로 지난해와 비슷하였음.
- 인지경로는 ‘언론매체’가 28.4% 지난 조사 23.3%보다 5.1% 높아졌고, 반면 ‘교과서나 관련서적’은 11.4%에서 7.0%로 4.4% 감소하고 있음. 원불교를 알게 되는 경로가 주로 ‘언론매체’와 ‘건물 및 시설’이 55.7%로 반절이상임.
- ‘원불교’하면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불교의 한 종파’(43.8%)라는 인식이 지난 번 조사와 같이 여전히 가장 높았음. 하지만,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 ‘원불교’하면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동그라미 표시’가 여전히 45.0%로 가장 높았으며, ‘원광대학교 및 부속병원’이 18.6%로 여전히 높았음. 하지만, 추이를 보면, ‘동그라미 표시’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원광대학 및 부속병원’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유아교육시설 및 복지시설도 조금이긴 하지만 낮아지고 있음.
-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호감(큰호감, 조금호감)이 12.7%에서 15.7%로 높아졌음. 하지만,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63.8%로 높으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 ‘원불교’에 대해 알아볼 의향에서는 ‘기회가 되면 알아보고 싶다’와 ‘적극적으로 알고 싶다’가 지난 번 조사보다 3.2% 감소했으며, 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관심없다’도 87.4%로 높으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관심에 대한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사회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타종교 무시’(25.0%), ‘성직자나 교인의 자질’(23.2%),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이를 보면 ‘양적성장몰두’와 ‘타종교 무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직자나 교인 자질’과 ‘사회정의 관심부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종교가 한국사회에서 가져야 할 사회활동은 여전히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68.8%)가 가장 높음. 추이를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와 ‘소수자 인권보호운동’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반면 ‘환경 및 생태운동’과 ‘윤리도덕실천운동’, ‘국제구호활동’은 낮아지고 있음.

제언

- 원기 95년부터 원기 101년까지 6년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질문별 작은 변동은 있으나,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젊은 층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한데 있다. 6년 전의 20대는 15%에서 27%, 30대는 11%에서 22%으로 종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탈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 2030 세대의 이들이 왜 종교 인구 변화에 중심적인 축으로 등장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사대상자 1000명 중에서 무종교가 무려 49.2%로 반절정도가 무종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중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에 호감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7.5%로 거의 대부분이며, 원불교는 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원불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무려 87.4%이다. 원불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불교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지금 한국사회는 종교에 대한 호감을 갖는 이유는 교리와 성직자 신뢰이며, 한국사회 종교의 문제점 '양적성장몰수', '타종교무시'는 줄어들고, '성직자나 교인 자질'나 '사회정의 관심부족'은 높아지고 있다. 종교가 관심을 갖어야 할 사회활동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와 '소수자 인권보호운동'은 늘어가고, '환경 및 생태운동'과 '윤리도덕 실천운동', '국제구호활동'은 낮아지고 있다. 이번 원불교 100주년 5대 지표(교화대불공, 자신성업봉찬, 세계주세교단건설, 대자비교단, 보은대불사) 또는 이번 101–103 교정정책은 이것을 잘 반영하였는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교리와 성직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 양적성장이 아닌 성직자 자질향상과 사회정의 관심 노력은 있었는지 반성해 보고,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와 소수자 인권보호 운동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설문을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매체'와 '건물 및 시설'이며, 매년 조금씩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또한 원불교하면 떠오르는 대상은 '동그라미 표식'과 '원광대학 및 부속병원'이며, '동그라미표식'과 '성직자복장',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원광대학교와 부속병원'은 높아지고 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언론매체와 건물 상징으로 잡아가고, 원불교를 알리는 것은 동그라미표식과 원광대학교와 부속병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많이 상징으로 여겨왔던 성직자 복장과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이 낮아지고 있음을 상기해 볼 만 한다.
- 원불교하면 떠오르는 것은 '불교의 한 종파'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이며, '불교의 한종파'와 '참신하고 간전한 새종교'는 낮아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원불교에 대한 정체성이 잘 서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부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국복음전도

 원불교 정책연구소

tel 063. 850. 3382

5453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 중앙총부